

<2025 국가직 9급 경찰행정직렬 합격수기-공부법 위주>

※ 본 수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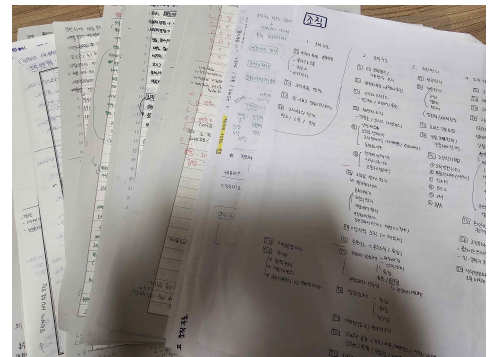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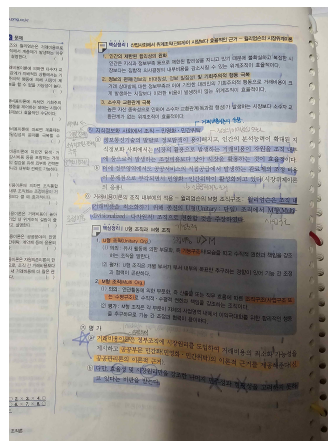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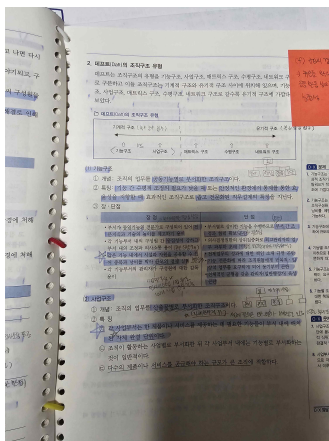
1. 인터넷 강좌로만 학습(현강X)
2. 24년 지방직 행정학 65점 → 25년 국가직 행정학 95점

▶ 시기별 행정학 학습 과정(개괄)

시기	7월~11월 초	11월 초~1월	2월~3월
사용 교재	하이패스 행정학 기본서	행정학의 핵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	단원별 적중 예상문제집 1000제 이명훈T 국가직 동형
학습 내용	올인원 강의 수강	행정학의 핵 강의 + 단원별 기출문제 강의 수강	단원별 적중 문제풀이 강의 + 행정학 핵으로 진행한 인사/조직/지방 특강 강의 병행 수강

▶ 시기별 행정학 본인 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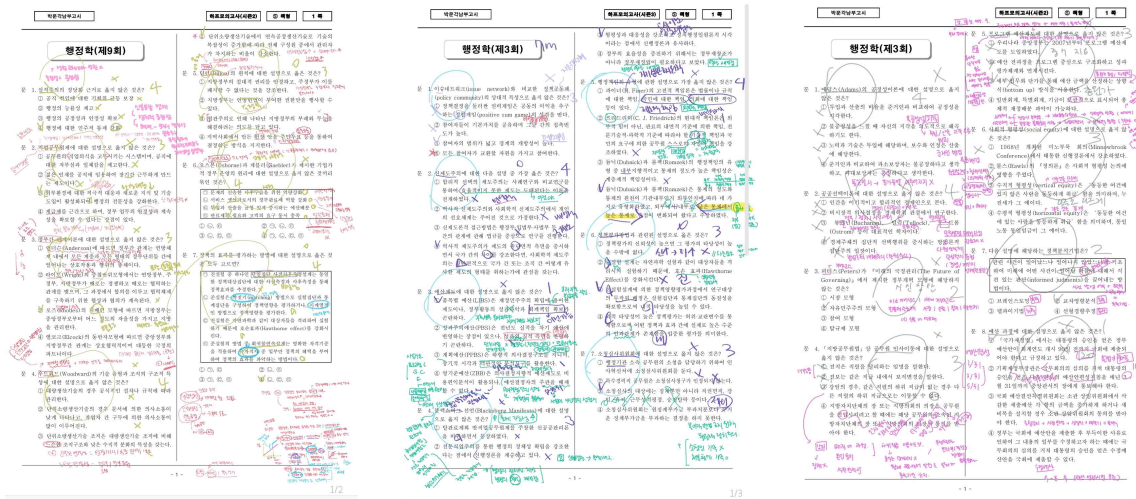
[7월~11월 초] : 하이패스 올인원 수강 (올인원 OX 자료) + 하프 모의고사 강의 수강 + 일일 모의고사 자기체크



1. 행정학은 양이 방대하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올인원을 수강할 때 최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올인원 강의에서 이명훈 선생님께서 중요한 대목을 항상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긋고 이후 복습에서 눈여겨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A4용지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적고 제가 스스로 서술형 방식으로 그 개념에 대해 기술해 보는 작업을 올인원 학습을 하면서 항상 병행하였습니다(3번째 사진 참고). 사실 양도 많고 힘들었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직접 개념을 기술해 보니 부족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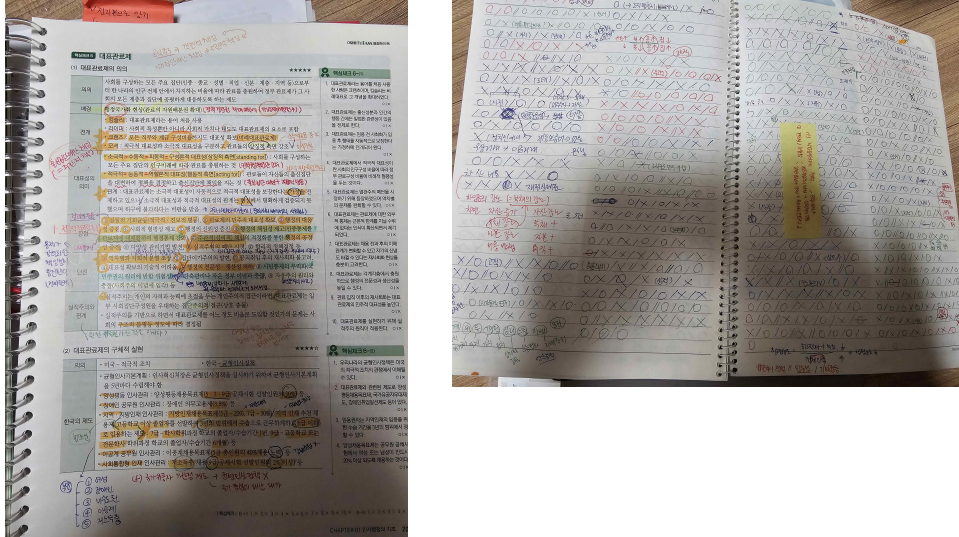
2. 인터넷 강좌로 올인원 완강을 하는 것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완강률을 높이는 방법은 실제 현장 스케줄과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현장 스케줄은 박문각 노랑진 학원 사이트에서 수업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명훈 선생님의 올인원은 월, 화에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박문각 인강 업로드는 월요일 강의는 화요일 오후 1시 즈음, 화요일 강의는 오후 수요일 즈음에 업로드 됩니다. 따라서 현강은 월/화에 진행되지만 인강으로 들을 때는 화/수에 수업을 듣는 셈입니다.

이에 저는 월요일에는 이전 수업에 대한 복습(←이때 상기 3번째 사진처럼 서술형 방식으로 백지 복습 병행)을 하였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인터넷 강좌 수강,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화요일과 수요일에 했던 올인원 복습을 하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일일 모의고사를 풀며 개념에 대한 자가 체크를 하였습니다.(강좌 수강은 X) 다만, 하프 모의고사는 제 기억으로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일요일에 하프 모의고사를 풀기로 정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하프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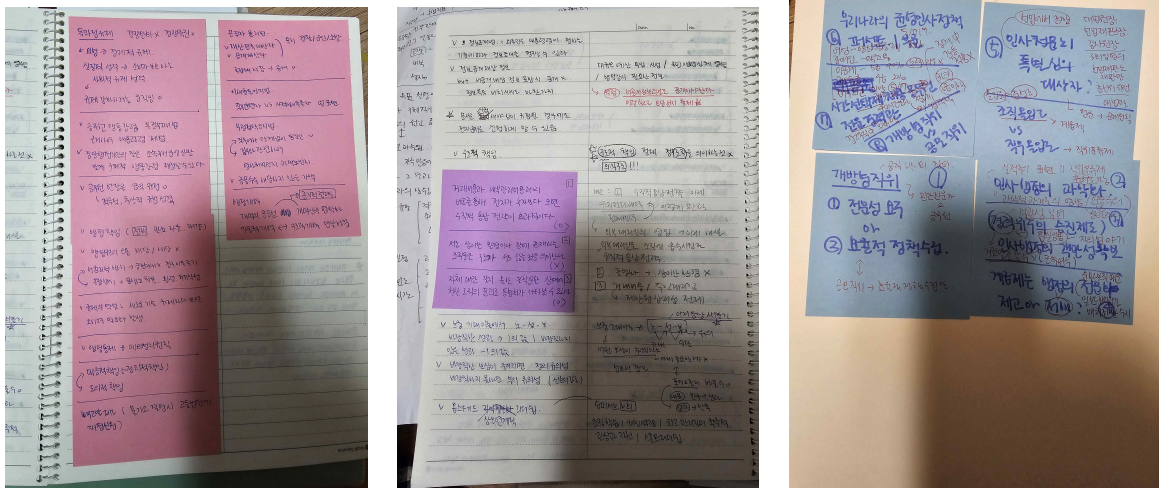


3. 하프 모의고사는 상기 사진과 같이 선생님께서 판서하시기 전 일시 중지 버튼을 눌러 두고 제가 스스로 개념에 대한 키워드를 적은 후 선생님의 판서와 비교해보며 제가 놓치거나 헛갈려 하는 부분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명훈 선생님께서는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판서를 꼼꼼히 해주시기 때문에 개념을 확인해 나가기 좋았습니다.)

[11월 초~ 1월] : 행정학의 핵 강의 + 단원별 기출문제 강의 수강 + 하프모의고사+일일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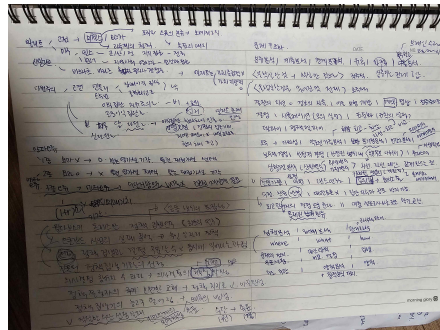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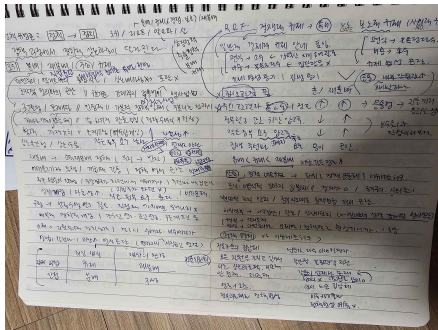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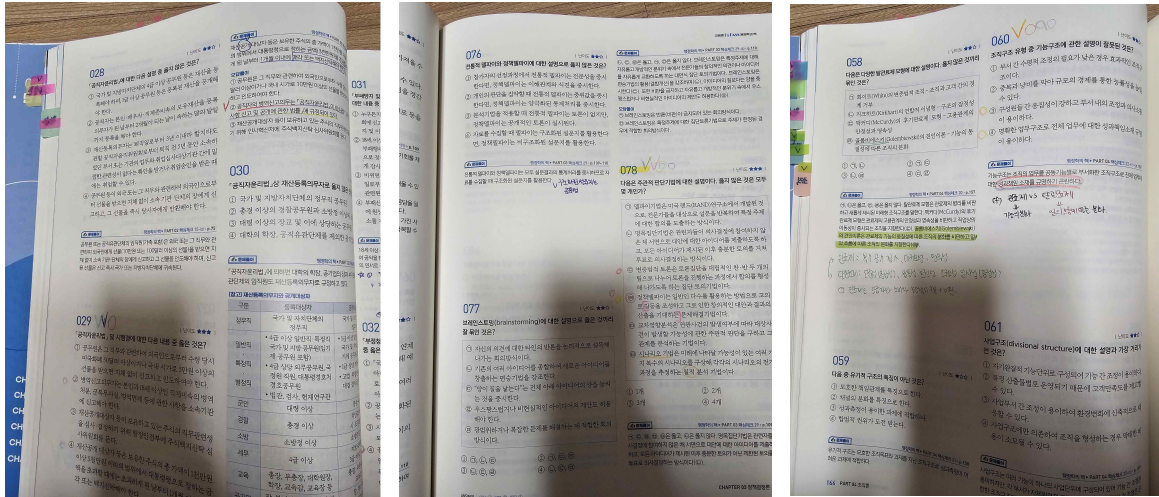


상기 사진은 행정학 핵을 수강하면서 OX문제들을 풀었던 흔적입니다. 혼자 공책에 OX를 먼저 풀고 강의로 한번 더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2회독 하였습니다. 더불어 3월에는 행정학의 핵으로 인사론/조직론/지방행정론 특강을 수강할 때 하루 2챕터씩 행정학의 핵 OX문제만 3~4회독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학의 핵 강의를 들 때 선생님께서 모의고사도 출제해주시는데 수강하면서 이것도 같이 풀면 정말 좋습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경우 저는 총 3회독 하였습니다. 상기 사진들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선지에서 제가 어색하고 한 눈에 보았을 때 모르는 개념들 위주로 정리해놓고 개념을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했던 흔적입니다.

[2월~3월] : 단원별 예상문제집 1000제 + 이명훈T 국가직 동형+ 인사론/조직론/지방행정론 특강



단원별 예상문제집 1000제는 심화 선지들로 구성된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집은 저의 경우 국가직까지 5회독 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5회독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험 막바지에는 많이 틀렸던 것들만 체크하여 그 문제들 위주로 회독하였습니다. 단원별 예상문제집이 좋다고 느꼈던 이유는 전반적인 선지 구성이 같은 개념이더라도 약간 생각해야 하는 선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념을 좀 더 튼튼히 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어려웠던 부분들은 공책에 한번 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스스로 백지 복습도 병행하였습니다. 1월에서 2월에는 단원별 예상문제집 1000제를 중점적으로 풀었고 3월에는 행정학의 핵으로 진행된 인사론/조직론/지방행정론 특강을 들으면서 행정학의 핵 OX를 하루 2챕터씩 회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무렵 이명훈 선생님의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총 6회를 병행하여 풀었습니다.

[마무리하며]

글로 정리하다 보니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행정학은 중의적인 표현도 많고 또 이를 이용하여 헷갈리는 선지로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디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주신 이명훈 선생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명훈 선생님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